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신지서 강해

스가라의 비전 V

(스가라 4장 1 - 14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스가라 선지자는 분명히 성전을 완공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 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신 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 자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 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존영의 때를 거두어 가십니다.

2. 하나님의 약속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9절).

성전 재건을 시작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마치게까지 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심을 믿고 담담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 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와 의 눈이라 하니라” (10절).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의 눈은 완전한 눈 을 가지신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환상은 스룹바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 고 나와 성전 재건에 힘을 쏟도록 해야 했지만 백성들은 무기 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스룹바벨은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 었고 그에 대한 믿음도 심어주었습니다. 참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때 원수들은 간교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홀어놓습니다. 이것을 큰 산이라고 비교 했습시다(7절).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 세는 이 방해물을 넘어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어깨의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 때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게 됩니다. 힘써 일하고 철 저하게 참여하므로 일을 이루려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 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스가라 선지자는 분명히 성전을 완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 다. 스룹바벨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은 손에 다림줄을 들고 측량을 하고 자로 깨며 땅을 파며 성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라면 아 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 리에게 주신 존영의 때를 거두어 가십니다.

마침내 스룹바벨은 4년 만에 성전 짓는 일을 완성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 2년 열한째 달 스닷월 24일에 하나님의 비전이 스가라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슥 1:7). 그리고 성전 완공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되었습니다(스 6:15). 4년 동안 스룹바벨은 내적, 외적 방해꾼들로 인하여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때 스룹바벨은 지름길 을 찾거나, 시간을 지체하며 일을 미루지도 않았습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스가라 선지자가 받은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받 으며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가라 선지자가 본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 에 있는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 하신 예수 님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습시다.

스가라는 다섯 번째로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잔대를 환상으 로 보았습니다. 순금 등잔대 위에는 기름 접시와 일곱 개의 등잔 이 있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개의 감람나무는 스룹바 벨과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지도자와 정치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후일에 이스라엘로, 신 약에 와서는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등잔은 하 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등잔은 항상 불이 켜 있으면 기름이 필요하며 기름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능 력을 말합니다.

순금등잔대에는 두 감람나무, 곧 지도자로부터 기름이 들어 오는 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지도자의 능력만큼 성장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로부터 교회에 기름이 보급되기 때문 입니다. 기름은 기계가 돌아갈 때 마찰이 생기지 않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온 교회가 평안합니다. 기름은 또한 상처에 발라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눅 10:34).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십니다. 성령은 무 엇보다 조명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지 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신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에너지를 증진시키도록 하십니다.

스룹바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정치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대제 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름부음 받은 자입니다(14절). 하나님은 기름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1.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 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6절).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일반적인 원리로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스룹바벨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힘이란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돈을 말합니다. 교회는 개인의 노력과 담력과 헌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워집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 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7절).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 할 때 안팎에서 방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때 하나님의 음 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해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해 결할 수 없는 모든 장애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는 맥추감사절

7월4일(주) 주일예배 시 성찬예식 거행

다음 주일은 우리교회가 맥추감사절로 지키게 된다. 주님의 축복아래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식탁의 풍성함을 선물로 받은 요즘의 젊은이들에게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요즘 우리는 감사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만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

가온 맥추감사절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신 것과 같이 우리민족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다음 주일 I, II, III 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맥추감사헌금도 드린다.

군복무자를 위한 월례 중보기도회 갖는다

7월4일(주) 오후 3시 30분 501호에서

지난 6월6일자 순례자를 통해 군복무중인 청년들을 찾는 한편 중보기도회를 갖기로 한 우리교회 비전2020 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는 군복무중인 청년들을 위한 첫 번째 중보기도회를 다음주요일인 7월4일(주) 오후 3시 30분에 501호실에서 갖기로 하였다.

현재 자녀가 군복무중인 성도들은 필히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군복무중인 청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힘써 기도하여 군복무중인 청년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군과송 준선교사로 전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많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힘써 기도하여 군복무중인 청년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군과송 준선교사로 전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4기 단기선교팀을 위한 아르바이트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에서 선교비 마련을 위해 시급히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 일본어 과외, 영어과외, 영어회화, 기타강습, 피아노강습, 드럼강습, 노래강습, 아이나 개 돌보기, 청소 및 각종 서비스용역 등 재주 많고 건장한 젊은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떤 일이든 달려간다.

현재 총 15명이 대기하고 있으며 기간은 7월 한 달로 이들에게 일감을 선사하길 원하는 성도는 언제든지 1층 사무국으로 연락 바란다.

2004년 농촌전도대원 모집

8월10일(화) ~ 13일(금)

우리 교회는 매년 여름, 복음전파력이 약한 농어촌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대상으로 전도대를 파송하여 단기간의 밀도 있는 봉사활동과 전도를 통해 전국 각 지역에 새로운 부흥을 주도해 왔다. 전도위원회(위원장: 민순구 장로)는 올해에도 8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전도대를 파송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촌전도대원으로 봉사할 성도들을 이번 주부터 신청받기로 했으며 농촌전도대 활동분과는 전도분과, 교육분과, 찬양분과, 홍보분과, 의료분과, 이·미용분과, 취사분과 등이다. 또한 여러 사정으로 참여 못하는 성도는 기도와 물품과 헌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2004년도 농촌전도대원 신청서는 교회사무국에서 작성 제출하면 되며 파송받은 교회는 추후 순례자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2004년 전반기 전도상 시상

7월4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이번 주일로 2004년 전반기를 마무리 하게 되는 우리교회는 전반기 동안 전도에 수고하신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갖기로 하였다.

자세한 전도상 시상 내역은 다음주 순례자에 발표될 예정이다.

<금주의 성구>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수 24:14-15)

"Now fear the LORD and serve him with all faithfulness. Throw away the gods your forefathers worshiped beyond the River and in Egypt, and serve the LORD. But if serving the LORD seems undesirable to you, then choose for yourselves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whether the gods your forefathers served beyond the River, or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are living.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NIV Joshua 24:14-15)

만민에게 전도 - 동아시아선교 제1회 졸업식참관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영수 장로 (2교구)

"이 교회와 상관에 있는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공산 세계에 서..."

이종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칠 때 마다 이렇게 축도하시는 것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백성들 특히 동아시아와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우리 민족을 우리의 교구로 삼았기 때문인 것이다.

1979년에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곳 동아시아를 방문하여 지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고 1980년 그리고 2001년과 이번까지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방문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함께할 목회자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것도 현지에서 살아 온 목회자가 가장 효과적이기에 우리 교회는 흥의만 윤희경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하여 신학교를 세웠고 이번에 3년의 과정을 마침으로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24명이 입학학을 하였으나 중도에 탈락하고 11명이 졸업을 하게 된 것은 밤낮 없는 엄청난 교육과정을 견디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제약과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때문도 있었던 것이다.

졸업식장에서 졸업생 대표가 끝내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전폭적으로 도와 준 서울 교회와 죽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키워 준 흥의만 선교사와 윤희경 선교사에게 표하는 감사의 표현은 참석한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종윤 목사님은 그곳에 도착하자 졸업을 앞둔 그들에게 무려 여섯 시간이 넘는 강의와 수요예배 설교 그리고 졸업예배와 졸업장 수여 등 딱딱한 일정을 모두 감당하셨다. 천여 명이 넘는 성도가 참석하여 드리는 수요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뜨거운 감격으로 찬송을 부르는 모습에서 동아시아 선교의 시급함을 깨닫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곳 교회의 서울교회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는 우리가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원한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졸업 한 자들이 목회현장으로 곧바로 달려가서 흩어진 우리 동포 뿐 아니라 동아시아 땅을 복음화 하는데 크게 쓰여 질 뿐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북한을 복음화 하는데 응답되는 큰 일꾼이 됨에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동아시아 땅에서의 첫 졸업의 감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날로 자유화 되어가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동아시아와 외화비를 내온 북한의 공산당원이 상품을 선전하다가 우리 앞에서 "예수님 찬양을..." 자진해서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통일의 그날이 다가 왔음을 확신하였다.

비록 열 한명의 졸업생이지만 자들이 선두에서 통일의 그날을 맞을 때 꺾박과 고난에서 신음하며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줌으로 감사의 눈물로 바랄 때 까지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짐 하면서 서울 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속적 선교사역을 위해 지역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한다.)

고구찬양대회를 마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박윤정 성도(8교구)

얼마 전 순례자를 통해 고구찬양대회 소식을 보았습니다. 다른 교구는 젊은 사람들이 넘치는데 반해 우리 교구(8교구)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하나 걱정도 많이 되었고 더군다나 교구장이신 홍성주 장로님이 저를 고구찬양을 지휘하라고 강권하셔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얼마 전 우리교구로 이사 오신 박경자 집사님께서 프로의 솜씨로 우리를 가르쳐주시기 시작하셔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102호 미스바 홀에서 찬양연습을 할 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이걸 다 외워야 하나 하시며 돋보기를 닦아 쓰시며 한번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긴 가사를 다 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미흡하지만 남성과트에서 테너와 베이스를 나눠 연습하고 약간의 율동도 넣기로 하였습니다.

마침내 고구찬양대회를 하던 날, 우리 교구는 다행히 일곱 번째로 발표하도록 순서가 잡혔습니다. 먼저 부른 다른 교구를 보니 어린이아이부터 어른까지 강대상 앞이 꽉 찰 정도로 많이 나와서 화려한 율동도 하며 찬양을 하여 기가 죽을 정도였습니다

다. 그러나 우리순서가 되자 우리교구의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가 찬양을 시작하셨습니다.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서서 잘 나오지 않고 갈라지는 목소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 아름답게 부르시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고 한 소절도 틀리지 않고 외워 부르시는 모습은 천국에서 찬양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심사에서 우리교구가 소망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고구찬양대회를 마치고 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우리의 손에 쥐어진 작은 트로피도 아름다웠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아름다운 율동으로 찬양을 하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성경읽기에도 열심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6월 호국의달 특별기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백영의 권사(11교구)



6월은 나에게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중요한 달이다. 먼저는 전쟁과 피난이라는 쓰라린 과거, 또 하나는 지금까지 십수년 지속된 흥해작전이다.

태평양 전쟁과 6.25 전쟁, 두 번의 전쟁을 경험한 나로서는 6월은 너무나 가슴 아픈 달이다. 2차 대전 후 중국에서 살던 우리 가족은 조국 땅인 서울로 왔으나 막상 고향인 북한에는 가지 않았다. 할머니께서는 무신론이 왕성한 북한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아버지는 할머니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러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대구에서 오랜 동안 피난생활을 하였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할머니는 가정제단과 사색제단을 거르신 적이 없었고 우리 가족은 할머니의 기도를 힘입어 손자녀들까지 단 한 명도 상하거나 흩어짐이 없었다. 환난과 전쟁 중에서도 주님만 믿고 기도하시던 할머니 기도의 승리였다.

요즘 나라가 뒤숭숭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일자리가 없다고, 안보가 흔들린다고, 더불어도 덕적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모두들 환승이다. 그래도 정치하는 이들은 큰 소리만 치고 있으니 결국 이 나라를 어게 위에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킨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의 담대한 믿음과 기도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공산주의의 실체를 모르고, 공산당을 미화해서 말하기까지 하니 전쟁 세대인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하기 그지없다. 호시탐탐 전쟁의 기회만 노리며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악의 세력들에게 명분 없는 통일과 평화가 무슨 이랑곳이겠는가! 우리는 탈북자들의 비참함과 용천 참사의 희생자들에게 최소한의 의료혜택도 배울 수 없는 북한의 실상을 명백히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한다. 지금 북한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복음이다.

이제 은퇴 권사가 되니 나의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더욱 간절히 생각난다. 할머니가 전쟁 중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이것은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할머니가 기도하신 것처럼 나 또한 마지막 분단국가인 조국을 위해 기도할 뿐이다. 우리 앞을 막고 있는 흥해를 건너기 위해서!

천국일문양성

청년부 성경공부의 바람이 분다

청년부에 성경공부의 바람이 불고 있다. 주일 청년 모임에서 조별로 나누는 GBS, 토요일집회에서 전해지는 이태훈 목사님의 말씀 인도로 청년들의 주말은 교회와 말씀 중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중에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교회로 달려오는 청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2003년 4월부터 시작된 이태훈 목사님의 직장인 성경공부가 그 자리다. 작년 4월, 두 명으로 출발한 성경공부는 점차 인원이 늘어나 현재 총 40여 명 참석하고 있다. 시간 제약이 있는 주일집회에서 보다 깊이 있는 말씀 공부에 아쉬워했던 청년들에게는 시냇가와 같은 성경공부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직장인 위주 성경공부반은 월,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9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고려노전서 깊이 읽기를 나누고 있다. 바쁜 직장 생활을 고려하여, 같은 내용을 월, 목요일 두 반으로 편성하여 원하는 시간에 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깊은 말씀공부를 원하는 청년들의 열망에 이 성경공부반의 심화학습은 1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재 진도는 고려노 전서 12장에 머물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 토요일집회 전에도 누가복음 깊이읽기반이 4시에서 5시까지 열리고 있으며, 목요일 새벽 6시 30분에는 청년부 주일 집회 GBS를 섬기는 조장들을 위한 특별 성경공부반이 열린다. 출근하기 전의 새벽시간을 투자하여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일터로 달려나가는 청년들도 스무 명 남짓 된다. 이들은 서로의 아침식사를 준비해오기도 하며, 한주일을 기다려 기쁨으로 모이고 있다.

물론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 중이며, 반드시 청년부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현재 대학부 수 명이 참석 중이다. 청년부 회원이 아닌 경우도 참석이 가능하다. 성경공부 시간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기도의 응답과 간증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존에 청년부에 출석하지 않았던 청년들도 성경공부를 시작으로 하여 청년부 출석하게 된 계기도 있다. 심지어는 타교회 청년도 함께 성경공부에 동참하기도 했다.

청년의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깨끗케 되기를 소망하는 서울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의 성원이 있기를 바란다.

나소정(편집부)

나의 하나님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



윤봉준 장로 (9교구)

대략 4~5년 전부터 주일 찬양예배가 끝나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버릇처럼 순례자를 2~300매를 꼭 가지고 옵니다. 월요일 혹은 화, 목요일 저녁시간에 "하나님 복음을 뿌려 가오니 함께 동행 하여 주시고 순례자 신문을 받는 자마다 성민이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간단한 기도를 드린 후 우리 옆집부터 시작하여 금은방, 약국 때론 고속도로로 틀게이트까지 일일이 들려 안부를 묻고 순례자를 드리며 하나님 꼭 믿으시고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혹은 하나님 믿으시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전합니다. 어느 약국 할머니 약사는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고 박카스도 대접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순례자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분도 계시지만 2년 전에 동네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하나님 품을 떠나 주일에도 가게문을 열고 장사하는 내외분은 제가 오는 것을 가장 반대하며 뒤통수에 욕지거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순간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심을 수없이 경험하곤 합니다. "오 하나님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근심걱정의 홍해가 저들을 가로막고 있지만 창조주이시며 복의 근원되신 우리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생의 천국에서 늘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 천국에서 살 것인데 우리의 년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10년을 하루로 계산하면 1주일 남짓 살다가 괴롭고 고난이 증첩된 이 악한 세상을 훌쩍 떠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데 저들은 복음을 마다 할까요?" 가슴이 미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천국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 노라 합니다. 그럴 때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는 흔들리지만 눈으로 바람을 볼 수 없듯이 영의 세계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아니 그 아름다운 천국이 바로 당신이 영원히 머물 집이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히 11장 1절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 모두 우리 가족과 일가친척 우리 이웃에게 꼭 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에는 우리 민족의 75%가, 그리고 잠시 후 5천만 우리민족과 북한에도 달려가 부흥회하는 날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열심히 전도합시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순간마다 성령께서 뜨겁게

13교구 다락방장 모임을 찾아서

아름답게 퍼지는 사랑의 하모니

8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미도 아파트 김신영 집사님 댁에는 이미 많은 다락방장들이 모여 있었다. 이날은 매달 한 번 씩 있는 13교구 다락방장들의 모임이 있는 날이다. 13교구는 은마와 미도 아파트에 새 신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구이다.



의 간사님들에게 감사하며 다락방장들은 서로 교제를 통해 많은 유익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모임의 목적은 13교구 식구들의 믿음의 성장과 새신자 양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교구가 건실한 성장을 하는 것이며, 더불어

교제를 통해 서로가 도전을 받아 다락방 식구를 더 잘 섬기며 단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모임은 김치 세미나에서 그 진가를 단단히 발휘했는데 한 다락방장도 빠짐없이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하여 베트남 목사님을 대접하고 선물을 직접 구입하여 전하였다고 무척이나 서로를 대견해 하였다.

모든 교제가 끝나고도 이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서로 교회소식을 나누며 그동안 기도응답받은 이야기 등을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이 아름다웠다.

유명희 (편집부)

교회 앞을 지나는 버스 번호와 노선 바뀐다 7월1일부터

서울시에서 오는 7월1일부터 버스 노선을 개편함에 따라 교회 앞을 지나는 버스의 번호가 모두 바뀌게 되고 노선도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교회 올 때 버스를 타고 오는 성도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조정된 버스 번호를 실는다.

· 대치역 승하차:

2413, 3219, 3420, 402, 4411, 609

· 은마사거리 승하차:

340, 3412, 3421, 420, 4312, 461

고등부 '학부모 1일 교사'

고등부에서는 오늘 '학부모 1일 교사' 행사를 갖는다. 1부 예배 이후 601호실에서 반별로 한 분씩 학부모님이 1일 교사가 되어서 자녀를 포함한 학생들을 가르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학생들에게 전하게 된다. 고등부 헌신예배를 맞아 진행되는 이 행사에 1일 교사로서 오시는 부모님들 이외에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동정

- 개인전: 이명아집사(11교구, 서울 산업대학교 교수) 6.25~7.3 장소: ART SPACE M-POST 갤러리
- 개업: 백수남 집사 김영희권사(5교구) 알즈너 샵 (발교정구) 과천시 중앙동 40-5 중앙빌딩 407호 T.02) 3679-4696
- 주간 식당봉사: 비희 여전도회(6월 27일) 마리아 (7월 4일)
- 금요철야담방부서: 대학·청년부 (7월 2일) 장년부 (7월 9일)
- 금주의 식사: 김진환 집사(신자경 성도) 가정, 이영주 집사(최양혜 권사) 가정 - 자녀 결혼을 감사하고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케이불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 30분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 30분 ●HLXK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농어촌 선교팀을 위하여
4.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